

문 대통령, 신년 컨셉은 '경제'

성과 창출에 '고백'

지난해 연말부터

김수현 정책실장 등

기업들과 대화 이어와

7일 중기인 초청 간담회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경제 관련 일정들을 두루 소화할 예정이다.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본격적으로 신발판을 놓으며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금년 상반기까지는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 관련 일정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에 접어든 국정 지지율과 악화된 경제지표가 일

관되게 '경제 문제'를 지적했던 것을 의식한 듯, 올해만큼은 경제 문제에서 반드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계다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한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경제 행보 가속화를 통해 본격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기치로 내건 '경제 성과'를 창출하고 체감할 주제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물질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광두 경제정책자문회의 부의장이 주요 대기업 임원을 만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점심도 기업 인들과 만나는 등 기업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이 김 부의장은 삼성, SK, LG 총괄 부회장 등을 만났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김 실장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신년회에서도 순경식 경총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정희선 현대차 부회장 등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올해 재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아울러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방향을 알리는 장소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낙점한 것 역시 올해 국정운영 방향은 오롯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년회가 청와대 외부에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곳을 낙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재계 총수들 앞에서 '경제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라며 "올해는 정책 성과를 국민 삶 속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의 투자를 격려하고, 혁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 행보도 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일에도 이를 예고하듯 "함께 혁신해야 한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중소기업인 1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초청되며, 문 대통령은 이들의 고충을 경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왜 민심 그대로인가?'

평화당 도당, 선거제도 개혁
6일 정동영 대표 초청 강연
'세만금 신평행 건설'
예타 면제 촉구 결의 도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중회)은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전주 노블레스웨딩홀 3층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초청 '왜 민심 그대로인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청강연회는 현행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선거제도 아래 매년 선거 때마다 50%가 넘는 표들이 사표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과 이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강연회에는 정동영 당대표, 김중회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수석최고위원, 조배숙 전 대표, 김광수 국회의원,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원의 김호서 전주를 지역위원장, 임정엽 완주진장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당원·지지자 400여명이 참석해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김중회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당의 득표율대로 총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인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안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다"고 밝히며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고 이는 올해 안에 꼭 실현시켜 우리 정치가 확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표들이 사표로 버려지게 만들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는 기필코 청산해야할 적폐 중 하나이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은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선거적폐 청산의 길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청강연회는 (재)민주평화연구원 주최,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주관으로 진행되고 강연회가 끝난후에는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전주 객사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 도입 거리홍보에 나설계획이며 이후 대국민서명운동과 병행하여 전국 순회강연회로 확대해 나가며 시민들께 민심그대로 선거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알리고 홍보할 계획이다.

공식행사에 앞서 식전행사로 "세만금 신평행 건설 예타면제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도민들의 운명이 달린 세만금 신평행 건설 예타면제 성명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2019 신년 인사회가 3일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실시된 가운데 안호영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역계익 절단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 민주당 전북도당 신년인사회

"문 정부 성공·통일시대 준비 선봉장 되자" 결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2019년 신년 인사회를 열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3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혁신하고 또 혁신해 21대 총선 승리를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춘석, 이수혁

국회의원,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새해 덕담과 총선 승리 염원 덕 나누는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철규 고문의 개회 선언에 이어 안호영 도당 위원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지난 2018년 전북도민께서 대선(2017년)에 이은 지방선거의 전폭적인 지지로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열게 된 해였다"고 말한 후 "반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같은 위기와 기회의 상존 속에서 전라북도의 더 나은 미래, 그리고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2019년은 일본일초가 무척 중요한 시기"라며 "도당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하고 무엇보다 지역의 미진 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전북도당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덕담 시간에 익산이 지역구

인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똑바로 해라. 다 뛰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싸움이 아닌 먼저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라며 "말로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실력으로 보여주려고 내년 총선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힘줘 말했다.

이날 모인 민주당 전라북도당원은 21대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선봉장이 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마무리했다. /김진성 기자

유성엽 "신재민 폭로 고발 악덕 기업의 재갈 물리기"

"기재부 태도, 내부고발 정당성 약화" 질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기재부의 고발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3일 유 의원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 고발부터 하고 보는 것은 전형적으로 악덕 기업이 '휘슬블로어'에게 재갈을 물리는 방식"이라며, "기재부의 이러한 태도는 내부고발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개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압박을 주는 것"이라며 기재부



의 대책방향을 질책했다.

또한 "신씨의 폭로가 일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명확하게 해명부터 해야함에도 고발로 대응한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들 간 싸움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차관보 등 기재부 현직 공무원들과의 대화내용은 실제 대화 여부와 언급 경위부터 국민 앞에 날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본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기재위원장에게 삼엄위계회를 정식 요구하고 나섰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